

문단은 종로서적... 살리고 싶지만 해법은 서로 달라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 종로서적이 부도를 내고 쓰러진 지 8개월 가까이 지났다. 문화 1번지 종로서적은 회생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종로서적 노조위원장 윤병만 씨, 부도 당시 대표이사 장덕연 씨, 그리고 출판채권단의 실무를 맡고 있는 종로서적(주)출판사채권단대책위원회 홍동수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종로서적 처리문제를 진단, 전망한다.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종로서적이 부도를 내고 쓰러진 것은 전국이 월드컵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던 2002년 6월 4일(이 날 한국 팀은 폴란드 팀을 꺾고 월드컵 출전사상 첫 승을 거뒀다)의 일이었다. 그것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의 의미와 파장을 지니는 것이었다. 종로서적은 지식문화의 상징이었다. 1세기 가까운 기간, 지식을 갈구하는 독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출판문화 발전에 끼친 공로도 지대했다. 출판계 인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종로서적의 파산을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로서적이 쓰러진 이유로는 오너의 부실경영, 그리고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의 출현으로 인한 시장 잠식, 온라인 서점의 공격적 경영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주차시설 미비 같은 열악한 고객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부도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종로서적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로서적 처리 문제는 8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종로서적은 모든 영업을 중단한 채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상태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 초반 직원 300명, 매장 이용객 하루 4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문화 1번지였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종로서적이 갚아야 할 채무는 채권단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액수만도 총 120여억 원에 이른다. 이중 책을 납품해 온 출판사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94억 원에 이르고, 직원 임금 및 건물 임대료, 제세공과금 채무가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부도를 낸 이후 철문이 굳게 내려져 있는 종로서적 후문의 모습.

장덕연 대표는 현재, 체불 임금 때문에 퇴직 직원들에 의해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그는 종로서적 7층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 계속 출근해서 종로서적을 회생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장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자구책은 화의를 통해 채권을 유예한 다음 매장 문을 열어 정상영업을 한 뒤 매출 발생에 따른 자금 회전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인수를 하거나 완전 매각을 해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출판채권단 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한다. 출판채권단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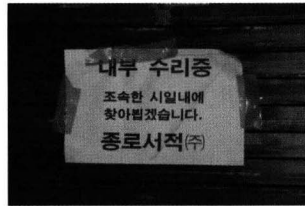
종로서적 간판 밑을 지나가는 시민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발길을 종로서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굳게 내려진 2층 셔터와 조악하게 나붙은 안내문.



하는 회의 불가 이유는 장덕연 사장이 내놓은 자구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채권단은 현재, 종로서적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비용을 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덕연 대표는 그만큼 자금 동원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채권단 측은 장덕연 대표 측에 법적인 대표권의 완전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94억 원 정도 되는 출판사 채권과 25억 원 가량 되는 임금 채권과 제세공과금 등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장덕연 대표는 거부했다. 장 대표의 입장은 종로서적 부도 사태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이에 채권단과 퇴직 직원들은 부실 경영의 책임자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장 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채권단과 노동조합 측은 '장 대표가 인척에게 회사를 떠넘긴 후, 다시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가장 사정이 딱한 쪽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직원들이다. 퇴직 직원들을 대표해서 체불 임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윤병만 노조위원장은 원래 28억 원 정도 되는 총 체불 임금을 60퍼센트 선까지만 받았다고 양보한 상태다. 체불 임금을 받을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은 총 172명. 이들은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 사람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대부분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병만 노조위원장은 현재 실무에 소용되는 비용을 대부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동안 종로서적의 제3자 인수협상은 세 차례 정도 있었으나 모두 결렬됐다. 출판채권단과 장덕연 대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몇 가지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기도 했으나, 가장 중요한 채무 이행 범위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퇴직 직원 복직과 현재 입고되어 있는 책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서도 다소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24일에는 장덕연 대표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채권단에 위임해 최종적으로 완전 합의를 눈앞에 두기도 했으나, 장 대표의 돌연한 서명 거부로 무산된 적도 있다. 현재 종로서적 매장 안에는 30억 원어치 정도의 책이 재고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간이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종로서적 처리 문제의 딜레마다.

종로서적 문제가 점점 더 난맥상을 띠는 데는 현 종로서적 건물이 경영주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건물주인 대한기독교서회와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현재 종로서적 쪽과 채권단 쪽에 건물을 비워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식문화의 상징이었던 종로서적이 이대로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인가? 당사자들의 손익 계산 때문에 이대로 종로서적이 분해된다면 그것은 문화의 논리가 자본의 논리에 패배한 수치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로서적은 반드시 회생되어야 한다. 채권단과 장 대표, 그리고 직원들도 이 같은 명분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퇴직 직원들도 인수협상만 원만 하게 타결되면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하루빨리 종로서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럴 때 시민들도 종로서적 살리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도언기자